

루만의 위험사회학과 재난정보 소통

Luhmann's Sociology of Risk and Disaster Information Communication

손기천*·박충식**

Son, Ki-Chon · Park, Choong-Shik

요약

위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인 고찰은 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는데 주력하는 재난관리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재난관리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국가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논의는 산업사회의 다음 단계로써 현대사회가 바로 위험사회라는 사회변동론적인 접근을 하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에 경도되어 풍부한 논의와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루만의 위험사회학은 소통에 기반을 둔 방대한 사회체계이론으로 위험에 관련한 소통을 위해와 위험으로 구별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새로운 안목을 제시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루만의 위험사회학이 이론적으로 정교한 체계이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위험과 관련된 체계들, 즉, 재난관리체계, 정치체계, 법체계, 경제체계, 환경체계, 언론체계, 등의 다이내믹스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keywords : 니클라스 루만, 울리히 벡, 위험사회학, 사회체계이론, 소통, 재난정보

1. 서론

위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인 고찰은 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는데 주력하는 재난관리 연구(손기천, 최영열, 박충식, 2008)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재난관리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국가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논의는 산업사회의 다음 단계로써 현대사회가 바로 위험사회라는 사회변동론적인 접근을 하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에 경도되어 풍부한 논의와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논점을 소개하고, 루만의 위험사회학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새로운 관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위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논의

인문사회학에서 논의되는 위험은 전통적인 재난의 분류로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을 3가지로 분류하다가 최근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였다)를 넘는 범위까지 대상으로 한다. 이들 위험의 목록이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 위험과 경제

* 정회원 · 국민안전처 soabe@korea.kr

** 정회원 · 영동대학교 스마트IT학과 leciel007@naver.com

적위험(빈곤, 불황, 금융위기, 고물가, 기업도산, 고용불안, 청년실업, 비정규직·근로빈민증가, 산업재해, 에너지결핍), 정치적위험(성차별, 노인차별, 장애자차별, 비정규직차별, 이주노동자차별, 테러)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의 불안정(이혼 증가, 가정 폭력, 아동·노인의 돌봄한계), 건강위험(전염병, 의료위기, 장애, 노령, 사망), 생태학적 위험(자원 고갈, 식수 오염, 산성비, 오존층 구멍,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술적 위험(원전, 생명공학, 나노 공학, 정보 통신장애, 고속수송 및 교통망의 기능장애)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박춘서, 2012).

크게 위험연구는 형식적 규범적 입장을 취하는 위험객관주의(Risk Objectivism), 심리적 인지적 입장을 취하는 위험주관주의(Risk Subjectivism), 그리고 문화론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는 위험구성주의(Risk Constructivism)으로 분류될 수 있다(박춘서, 2012).

위험사회론으로 사회의 위험연구를 주목시킨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 이후 현대사회는 원자력발전, 중화학공업, 생명공학 등 새로운 기술의 투입 증가에 따라 ‘기술적으로 위해(danger)’가 바로 위험사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이 현대사회의 물리적 하부구조와 사회체계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위험의 구체적인내용과 형태가 현대화의 전개에 따라 시대별로 변화하는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위험을 사회이론적 관점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분석해내지 못하였다(박춘서, 2012; 노진철, 2010).

3. 루만의 위험사회학

3.1 루만의 사회체계이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Niklas Luhmann)이 만든 사회체계이론(theory of social systems)은 사회를 소통(communicative interaction)의 자기생산체계(auto-poietic system)로서 기술한다. 루만 사회체계이론에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독특한 점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기생산체계는 이러한 소통들의 체계로써 환경과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통들 스스로의 작동에 의하여 소통들을 생산하는 사회의 기능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기능체계로써 경제체계, 정치체계, 법체계, 학문체계, 교육체계, 대중매체체계, 예술체계, 의료체계, 등이 있고 역사의 특정한 시기에 이러한 기능체계의 필요성에 의하여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체계는 체계의 프로그램(프로그램도 체계의 소통들에 의하여 동작한다)에 의하여 소통에 코드를 할당함으로써 자기생산체계를 이루게 되는데 경제체계는 지불(소유)/비지불(비소유), 정치체계는 우세(통치)/열세(반대), 법체계는 합법/불법, 학문체계는 진리/비진리, 등의 코드를 할당한다.

루만은 사회를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온 사회학 이론들이 제대로 사회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소통들을 사회의 기능을 구현하는 기능체계로 파악하고, 여러 종류의 기능체계들을 구별해내고 이의 작동을 분석하였다.

2.2 루만 위험사회학에서의 위험

루만은 위험(risk)과 위해(danger)를 구별하는 것으로 위험의 체계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어떤 피해가 자기 스스로 한 결정에 원인이 있을 경우는 위험이 되고, 반대로 피해자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올 경우는 위해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는 단지 스스로에 의해 그

리고 여러 다른 위기의 관찰에 대한 소통을 통해서 위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박춘서, 2012).

불확실성 시대의 제 위험의 분석에서는 위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의 위험관리는 사회보장과 안보, 재난예방, 위험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험소통은 법체계를 비롯하여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부분체계들이 위험과 위해의 차이를 가지고 스스로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작동이다. 정치체계는 기능체계의 하나로서 일상적인업무에서 고도로 위험한 결정을 요구한다. 정치체계는 어떤 출처에서 온 위험이든 정치화를 요구하는 압력을 받는다(노진철, 2014).

4. 위험과 재난정보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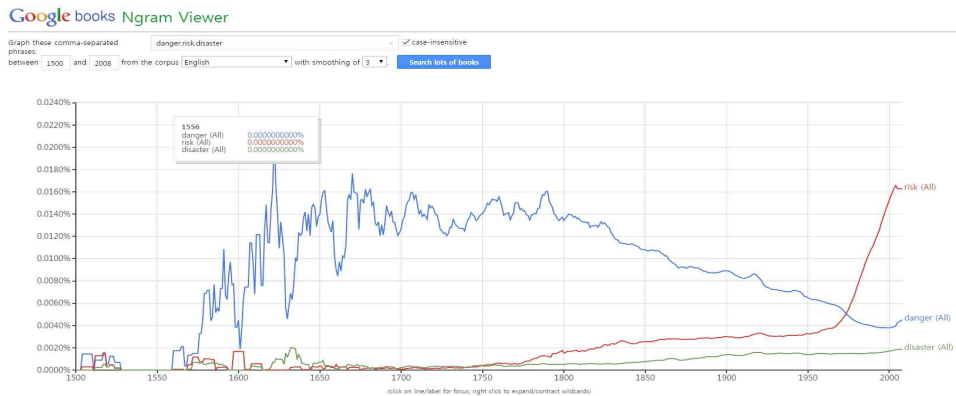


그림 1 구글 n-gram에서의 위험(risk), 위해(danger), 재난(disaster)

현대사회에 기술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위해가 증가한 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 기술들이 인하여 이전에는 재해로 간주되었던 것이 위험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더욱 현저하다. 이러한 과정은 위험에 관한 소통이 단순히 관련 위험관리기관에 그치지 않고 최고의 위험 결정 기구인 국가와 정치체계와의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험은 정치적인 사건이 되고, 정치적인 사건이 되면 법체계와 관련하게 되어 경제체계, 언론체계와 연동하게 된다. 실제 재난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재난관리체계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재난정보 소통의 불협화음으로 세월호, 마우나 오션리조트, 등과 같은 대형재난 사고를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루만 체계이론에 의한 재난정보 소통을 시스템 이론적으로 파악하도록, 관련 기능체계들을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재난관리체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최제영, 박충식, 2013; 2014).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위험에 대한 인문사회학적인 고찰을 통하여 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는데 주력하는 재난관리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재난관리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사회의 여러 체계들, 즉, 재난관리체계, 정치체계, 법체계, 경제체계, 환경체계, 언론체계, 등이 기능하는 국가의 서비스라는 점을 보여주 고자 하였다.

위험에 관련한 소통을 위해와 위험으로 구별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새로운 안목을 제시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루만의 위험사회학을 중심으로 위험을 논의하였다.

또한 루만의 위험사회학이 이론적으로 정교한 체계이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과 관련된 체계들, 즉, 재난관리체계, 정치체계, 법체계, 경제체계, 환경체계, 언론체계, 등의 다이내믹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NetLogo와 같은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향후 실제적인 사회의 위험 체계 이해를 위한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NetLogo, <http://ccl.northwestern.edu/netlogo/>

노진철 (2004) 위험사회학 - 위험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이론화. *경제와 사회*, 63, 98-125.

노진철 (2009) 위험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Beck의 '위험사회론'에서 Luhmann의 위험사회학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1권, pp.1-20.

노진철 (2010)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 한울.

노진철 (2014)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들과 정치에 대한 요구 증대. *사회와이론* 25, pp.7-39.

루만(지음), 베커(편집), 이철(옮기) (2015) *사회이론 입문*, 이론출판

루만(지음), 윤재왕(옮김) (2014) *체계이론 입문*, 새물결

박춘서 (2012) 구성주의 시각에서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논리. *언론과학연구*, 12(3), pp.170-200.

손기천, 최영열, 박충식 (2008) 정보융합기반 지능형 재난방재시스템 프레임워크, *2008년 추계 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송해룡, 김경희 (2011) 위험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세연구* 제27집 pp.187-202.

최제영, 박충식 (2013) BRMS를 이용한 루만의 사회체계이론 구현방안, *2013년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최제영, 박충식 (2014) "행위자 기반 미시-거시 연계 경제 시뮬레이션과 루만의 사회체계이론 구현", *2014년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